

계리사회 운영개선(안)

◆ 비전

계리사 : 존경받는 재무전문가로서의 위상 강화

계리사회 : 자율규제기구로서의 역할 활성화

2018. 3

목차

1. 지배구조 선진화
2. 회원 자질 향상
3. 공익기능 활성화
4. 계리사의 처우개선 및 역할 증진
5. 계리사회의 역량 강화
6. 회원간 교류 활성화
7. 국제협력의 내실화
8. 기타

작성 자 : 이재민

운영원칙

- 그 동안의 발전을 토대로 점진적인 개선
- 회원들의 적극적 참여 유도
- 회원들이 기대하는 서비스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
-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참여형 리더십 도입
- 성과 중심으로 활동 지원
- 활동의 투명성과 평가 후 환류 증진

향후 핵심 목표

- 교육연수기능 내실화
- 계리사의 역할 / 지위 고양
- 계리업무실무표준 정립 기능 강화
- 국제계리사회와의 협력 증진

1. 지배구조 선진화

① 목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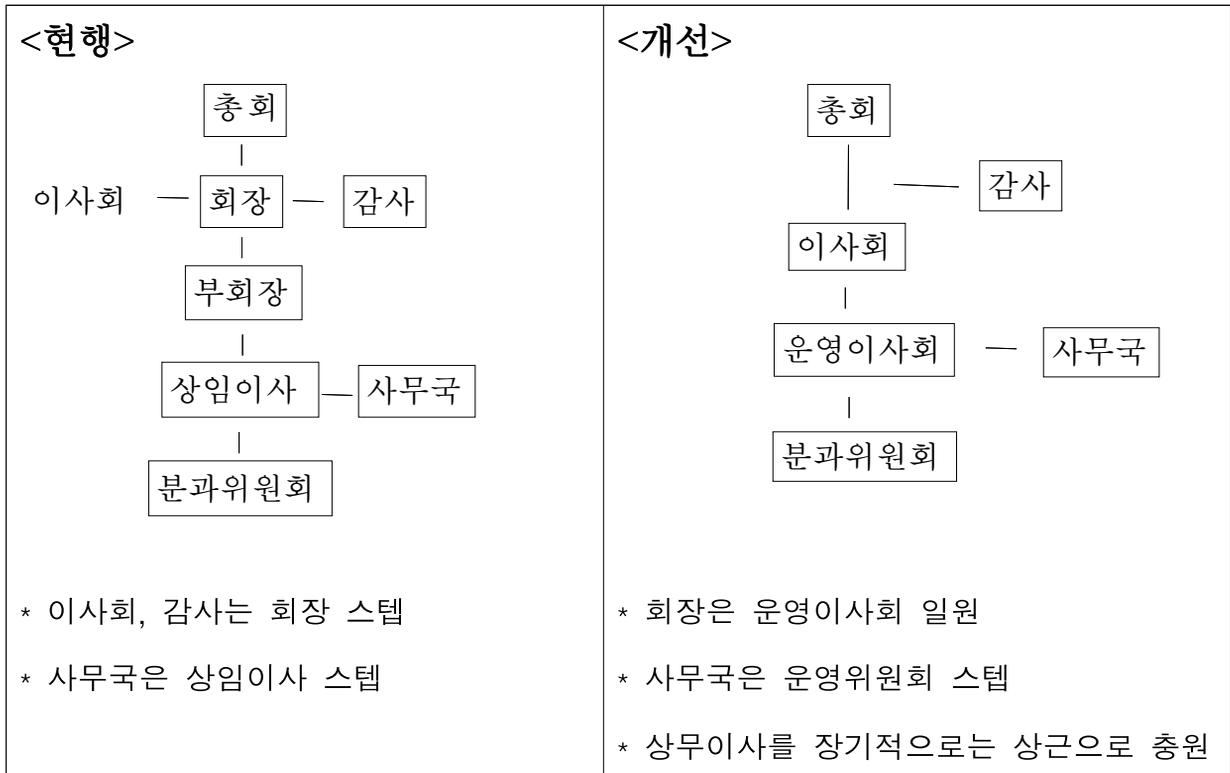
- 회장 중심의 권위적인 지배구조를 지양하고 회원 친화적인 집행부를 구성하여 집단적 의사결정 체제에 의한 자발적인 참여 유도과 다양한 언로 확보
- 차기 회장을 미리 선임하여 준비된 리더십으로 연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사업추진을 도모함
- 회장 임기 단축을 통해 다양한 능력과 경륜을 가진 계리사들에게 사회적 헌신의 기회를 부여하고 계리사회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에서 회장 임기 조정 검토

② 현황 및 문제점

- 회장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로는 다양한 언로가 제한되어 다양한 의견 수렴과 회원의 자발적인 참여도를 높이는데 제약이 될 수 있음
- 회 발전을 위하여 영향력 있는 여러 회원의 봉사가 필요하나, 3년 연임제의 회장 임기는 많은 사람이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함
- 회장 임기 말에 차기 회장을 선임하는 것은 리더십 단절을 초래하여 사업추진이 중단될 수 있고, 회장 유고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음
- 감사가 운영진에 포함됨으로써 감사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제약이 있을 수 있음

③ 대안 또는 개선 방안

- 회장의 위상과 역할을 조정하고 합의체에 의한 의사결정 구조로 지배구조 개편



- 일반적인 사안은 운영이사회에서 결정하고, 주요사안은 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 또는 의결 상정
 - 이사회 중심의 의사결정 체제를 갖추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이사회를 둠
 - 회장은 대외적으로 계리사회를 대표하고 운영이사회를 주관하되, 일상적 사안 및 위임받은 사항들에 대해서만 독자적으로 결정
 - 현행 운영이사회가 회장을 보좌하는 기구였다면 향후에는 운영이사회가 중심이 되고, 회장은 그 결정사항을 집행

- 운영이사회는 현행구성원인 회장(단)*, 부회장, 상무이사 외에 고문 및 위원장 중 일부로 구성

* 회장단(회장 현회장, 직전회장, 차기회장)은 향후 차기회장 선출 등 지배 구조 개선이 이루어진 경우 적용

** 정관 상 고문, 감사는 운영이사회에 참석 가능, 다만 의결권 행사안함

- 감사는 업무감사/회계감사로 구분하되 견제기능 등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독립

□ 회장임기 조정 및 차기 회장 미리 선임

- 계리사회의 업무가 연속성/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운영되도록 차기 회장을 회장 임기 만료 1년 전에 선임

- 경륜있는 다수의 계리사가 회장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회장 임기 단축 및 단임제 등에 대하여 모든 회원들의 의견수렴 및 논의 후 결정

- 현행대로 3년 유지, 2년 또는 1년으로 단축 방안

- 현행대로 연임까지만 허용, 단임제로 변경 등

* SOA, IAA의 경우 임기 1년으로 하되, 회장 임기 1년전에 선임하여 회장, 직전 회장, 차기 회장이 회장단(officer)을 구성하고 있으며, 호주의 경우는 현 회장, 수석부회장(차기 회장), 부회장(차차기 회장)이 회장단 구성

2. 회원 자질 향상

① 목표

- 모든 이해당사자*에게 계리분야 전문가로 신뢰받는 계리사 양성

* 이해당사자 : 정책당국, 감독당국, 보험회사, 보험 외 계리적인 업무가 필요한 회사, 일반인

② 현황 및 문제점

- 경력관리프로그램*이 있으나 체계성이 부족하고, 실행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(부과된 학점을 취득하지 않았을 경우 조치방안이 없음**)

* 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

** SOA의 경우 2년간 60단위를 취득하도록 되어 있고,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그 사실을 이해당사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, 우리나라의 경우 금감원에서 자격증을 부여하므로 이 이행결과를 금감원에 제출하는 방안 모색 필요

- 최근 교육 참여도가 낮아지고 있는 추세임
- 아직 계리사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지 않아 공부하는 학생이나 시장 수요가 부족한 상황임
- 계리사가 전문적인 지식을 다양한 방면에 활용하고 역량을 발휘하기 위하여 커뮤니케이션 능력 등 관련 소양이 필요한 실정

③ 대안 또는 개선 방안

□ 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대형회사 등 관계자와 협력하여 참여도 제고

- 교육프로그램은 당분간 현행 틀을 유지하되 내실화를 위한 콘텐츠를 보완하고 시의성 있는 교육은 특강형태로 보충
 - 콘텐츠 보완은 주제 선정과 강사발굴에 달려 있으므로 회원의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시의적절한 주제 선정과 강사진 발굴을 상시화
- 대형사와 교육프로그램 개발 협조관계 구축(회사의 연간 교육 프로그램을 확보하여 사내교육 담당자와 협의)
- 운영이사회 구성원이 각사 경영진을 면담하여 직원들이 계리사회 연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분위기 조성
- 수업시간이 5시간 이상 되는 과목에 대하여는 Quiz 중심으로 간단한 테스트나 문제에 대한 설명시간을 설정하여 강사로 하여금 성적 우수자에게 문화상품권(소정액)을 시상하는 등 학습효과 제고

□ 우수한 계리인력의 유입 촉진

- 대학의 계리관련 전공학과(수학, 통계학)와 관련 학과(경제학, 경영학) 학생들을 대상으로 계리사의 역할, 직업의 특성, 향후 전망 등 관련 정보 적극 홍보
 - 세미나, 인터뷰, 유튜브 등을 활용하여 사례중심의 홍보 활동
- 계리사회와 업계, 학계(교수 및 학생)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재를 양성 및 영입
 - 우선 서울 주요대학에서 직업소개 세미나를 연 1회 순회 개최하되, 구체적인 방법은 학교와 협의하여 진행(참석자 : 보험회사 인사담당자 또는 계리사, 관련학과 교수, 학생)

- 홈페이지에 계리관련 학교(대학, 대학원) 및 학과(교육과정) 소개
- 계리사시험 등 자격 획득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, 관련 카페 등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제공
- 시험준비생(잠재적인 회원)들과 정보교환 등 소통채널 운영(시험준비생 카페나 학원 활용하여 요구사항 파악)
- 홈페이지에 “계리사 준비하기” 코너를 만들어서 관련자료 제공

□ 전문가로서의 활동을 홍보하여 계리사의 이미지 개선

- 직업으로서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는 계리사(고위직 또는 성공적인 경력을 가진 계리사 인터뷰), 계리업무(홍보자료)를 통한 홍보
- 계리사가 활동하고 있는 분야를 조사하여 통계 수록(회사, 활동분야 또는 업무, 직책별 통계 등)

□ 계리사의 역량 다양화(계리지식 이외의 역량 강화)

- 계리 외 타 직군으로의 진출, 고위직 승진, 보험회사 이외로의 진출을 위하여 계리지식 이외에 관리능력과 소통능력 개발
- 관리능력, 커뮤니케이션 과목을 각 과정 내에 추가 편성

3. 공익기능 활성화

① 목표

- 계리업무실무표준을 마련하는 등 자율규제(Rule Setting)를 주도하고 이익집단을 넘어선 전문가단체로서 공익기능 강화
- 계리사회가 계리사시험 운영의 중심 역할 수행
- 계리사 등록업무를 수임하여 자율규제 토대 강화

② 현황 및 문제점

- 감독관련법규(법/법시행령/법시행규칙/감독규정/감독업무시행세칙) 및 공사회계(IFRS17), 신지급여력(K-ICS) 등 감독회계, 나아가 세무회계에 이르기까지 원칙중심으로 규정하는 추세로 하부단위의 업무실무표준 정립 필요
- 계리감독정책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리뷰, 연구활동 등 전문가 활동이 미흡한 실정
- 계리사 시험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응시자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계리사회 대응이 부족
- 계리사회가 자율규제 토대를 완성하기 위하여 회원의 등록/탈퇴/퇴출 등 계리사 관리업무를 위탁받을 필요가 있음

③ 대안 또는 개선 방안

□ 보험감독법규에 관한 세부기준 등 계리업무실무표준 정립 주도

- 감독관련법규 및 공시회계(IFRS17), 신지급여력(K-ICS) 등 감독회계, 세무회계 등에 대한 하부 단위의 업무실무표준을 정립하기 위하여 할인을 결정 방법 등 사안별로 관련 위원회 산하에 TF 운영
- TF를 통하여 완성된 계리업무실무표준은 교육을 통하여 계리업무 담당자에게 전파

✓ 계리업무실무표준을 만드는 과정에서 정책 및 감독기관과 긴밀한 협의가 요구됨(당국과 TF가 협조할 수 있는 채널이 마련될 수 있도록 회장 등 계리사회 임원의 노력 필요)

- 성과 중심의 활동을 위해 계리기준위원회 등 계리업무실무표준 정립관련 TF에 계리사회 역량을 집중 지원
 - 필요 경비에 대하여 실비(식대) 및 조사연구비를 계리사회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계리사회의 지원범위(경비, 인력협조)를 규정
 - 위원회 또는 TF결과 보고서(성과물)에 대한 적절한 평가와 시상 및 홍보(홈페이지 또는 전자메일)
- 계리사회 작업반 참여 직원에 대해 인사고과 및 업무평가 시 회사 업무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분위기 조성
 - 운영이사회가 업계대표자에게 계리사회 사업계획을 설명하고, 작업반 참여 등 업계 협조를 요청
 - 아울러, 작업반 직원에 대하여 사후 계리사 회장 명의의 적절한 업무평가 협조요청 문서 송부

□ 계리감독정책 관련 리뷰, 자문 및 능동적 제안

- 금융감독당국의 계리업무에 대한 감독정책 수립 시 의견수렴 창구 역할 강화(객관적인 입장에서 업계/감독기관과의 가교 역할)
 - 감독당국 관계자에 계리사회의 역할을 제안하고 적절한 역할수행을 통하여 신뢰성 확보
 - 사안별 검토 및 연구는 위원회 내 TF를 구성하여 추진하고, 행정 처리는 계리사회를 통하여 처리하되, 일반적인 지원사무는 계리사회 사무국에서 지원
- 각종 계리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과 관점 제시
- 주요 현안 또는 미래에 예견되는 문제(노령화 대응방법 등)에 대한 주제별 연구 활동 지원
 - 계리사회 연례 사업계획 수립 시 현안 등은 연구과제에 포함(담당 위원회 지정)하여 지원하고, 추가되는 주제에 대하여는 현안 발생 시 TF를 결성하여 추진
 - 조사연구비 등 공익 관련 업무를 진행하기 위한 예산 확대

□ 계리사시험 운영에 대한 적극적 의견 제시

- 계리사시험의 출제 수준, 범위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고, 계리사 자질 측정의 합목적성에 부합하도록 관련 기관에 시험운영에 대한 대안 제시
 - 문제출제 방법(문제은행, 문항 당 배점 등), 교수풀 운영 방법 등에 대하여 학계*, 업계(계리사) 등이 협의하여 대안 마련
- * 계리분야 학과가 있는 대학 등 계리사를 많이 배출한 대학들을 중심으로 관심있는 교수들을 포함

- 계리사 지원자가 운 보다는 실력에 따라 합격할 수 있도록 학계 및 업계현장 의견이 더욱 잘 반영되고, 계리사시험의 과목별 출제범위 (syllabus) 등이 명확히 제시될 수 있는 체제 마련
 - 시험운영주체, 업계 및 학계 간에 공론화를 통하여 출제범위에 대한 합일점을 모색하고, 사후평가 실시
 -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험범위는 시행기관을 통하여 발표하도록 하고, 사후 평가는 계리사회에서 의견 제출
- 많은 응시자가 직장에 다니면서 최종합격하므로 2차 과목 합격자가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과목별 합격 유효기간을 확대 추진
 - 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금융위 및 금감원과 협의 및 건의

□ 금융권 외의 계리업무에 대한 적극적 의견 제시

- 인구 및 연금재정 추계, 각종 공제에 대한 계리관련 지원 및 의견 제시로 전문가 역할 확대

✓ 외국 사례를 보면 인구추계 등도 계리사회 연구 주제로 다루고 있음. 우리나라의 경우 경험생명표 등은 보험권역에서 담당하고 있어서 계리사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찾아 볼 필요가 있음

✓ 또한, 계리사가 현업에만 매몰되지 않고 보다 폭 넓게 다양한 주제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음

□ 계리사 등록 업무의 계리사회 위탁 수임 추진

- 계리사의 등록업무는 자율규제의 토대가 되고 신규계리사에게도 계리사회 역할 인식을 강화할 방법이므로 현재 금감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계리사 등록업무를 계리사회로 위탁될 수 있도록 추진
- 회원의 등록/탈퇴/퇴출 등 회원관리 업무를 강화하여 자율규제 바탕을 공고히 하고 신규계리사에게 계리사회 역할 인식 강화

4. 계리사의 처우개선 및 역할 증진

① 목표

- 계리사시험이 과거 대비 어려워진 점을 감안하여 계리사 수당 인상과 준계리사의 내부 등록관리 추진
- 업무매뉴얼을 개발하여 신규 업무를 수행하는 계리사를 지원하고, 계리사 역할모델 소개, 인턴실습기회 확대 추진으로 다양한 방면으로의 진출을 지원함으로써 계리사 역할 증진 도모

② 현황 및 문제점

- 계리사 시험이 어려워진 점을 감안하여 일부과목 합격자와 최종합격에 대한 적절한 대우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
- 선진국에 비하여 국내 계리사가 진출한 직군범위가 좁고, 타 산업분야나 해외 진출자가 적은 실정으로 계리사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도록 지원 필요

③ 대안 또는 개선 방안

□ 계리사 권익 및 위상 강화방안 모색

- 외국계 보험사들에서와 같이 계리사가 보험회사 경영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는 분위기 조성
- 지속적 홍보를 통해 계리사의 역할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
- 계리사에게 권한보다 과다하게 책임이 부과되는 문제점 개선

□ 선임계리사 제도개선 제안

- 선임계리사 이전 결산, 공시, 상품 등 부문별 계리사 확인 활성화, 대표계리사 신설과 외부검증 의무화로 이원화 등 검토

□ 계리사의 수당 인상 추진

- 구 계리사시험에 비해 신 계리사시험의 과목 수 증가한데 상응하여 계리사 수당의 인상 추진
 - 각사 CEO면담/금감원 협조 요청

□ 준계리사 대우 마련

- 계리사시험 2차 과목 중 계리리스크관리 및 보험수리 2과목 합격자 *에 대한 준계리사 대우 마련
 - * 과목별 합격자 통계 필요
- 준계리사 공인 자격인증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계리사회 자체적으로 준계리사 등록 및 정회원으로 대우하는 방안 검토

- ✓ 아울러 계리사를 준비하는 학생의 경우 예비회원으로 등록하여 계리사회 및 회원과 네트워크를 갖게 하되,
- ✓ 홈페이지 정보 접근권을 회원과 차별하고 회비는 면제하는 방안 검토

□ 계리사의 업무 매뉴얼, 계리업무 설명서 개발

- 빠른 업무 적응과 유사업무와의 소통 원활화를 위해 업무내용별 매뉴얼(실무자용)이나 계리업무 설명서(예 : 임원 대상) 개발 제공
 - 업무내용(계리, 상품, 리스크관리, 재무, 보전, 영업지원)
 - 업무매뉴얼, 업무설명서 작성 TF를 구성하여 추진

□ 계리사의 다양한 역할 모델 소개 및 개발

- (장래)계리사가 미래 진로 계획을 명확히 세우고 노력하도록 계리사가 하는 일과 다양한 성공 모델에 대한 구체적 소개(외국 계리사 인터뷰 등 포함)
 - 계리사 직업에 대한 안내자료, 상담자(자원봉사 계리사)를 홈페이지에 게시
 - 외국 계리사회의 협조를 구하여 외국 계리사의 인터뷰 영상을 우리 홈페이지에 게시(한글설명 또는 자막 삽입)

□ 인턴제도 등을 활용한 계리사 양성

○ 인턴제도 활용 촉구

- 계리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업무에 대한 체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보험회사로 하여금 인턴 채용 확대 권장
- 계리사를 채용했던 적이 없는 회사지만 통계분석, 예측분석이 필요한 회사에 계리사가 할 수 있는 일을 소개하고, 계리사를 채용하도록 안내(장기과제, 우선 인턴으로 채용할 수도 있음)

□ 계리사의 해외 진출 지원

○ 국내 계리사가 해외에서 활동이 가능하도록 경력개발 및 취업 지원

- 국내 보험회사 해외 지점, 외국보험사에서 국내계리사가 공인계리사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당 계리사회와 협력

하고, 계리사의 신인도 제고를 위한 대외 홍보 및 협력 강화

□ 계리사의 역할에 대한 대외 홍보

○ 계리사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홍보 활동 전개

- 계리사가 분석적 사고와 통계기법 사용 측면에서 전문성이 높다는 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파
- 계리사의 진출 영역 확대를 위해 보험회사 외에도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 가능성을 홍보

5. 계리사회의 역량 강화

① 목표

- 계리사가 전문가로서 본연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계리사회의 인력과 시설에 대한 인프라 확충
- 특수 목적을 위한 연구 등 전문가단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부금 등에 의한 재원 확충

② 현황 및 문제점

- 현재 계리사회 사무국은 일반적인 행정 및 서무업무를 처리하고 있고, 위원회 활동 지원 등 전문분야 지원에는 한계가 있음
- 향후 정보축적 및 제공, 계리사 업무 홍보, 소통 공간 제공 등 홈페이지 관리업무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인데 이에 관한 인프라 구축 및 인력 양성 필요
- 조사연구 지원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

③ 대안 또는 개선 방안

공익기능 활성화를 위한 계리전문인력 충원

- 주제별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대형사 중심으로 전문인력을 계리사회 파견 추진(파견회사에 대하여 법인회비 면제 등 편의 제공)
 - 먼저 연간 활동 주제를 정하고, 주제별로 담당할 계리사를 계리사회에 순환 파견하도록 대형사에 협조 요청

□ 인프라 개선

- 홈페이지 자료실 확대, 동영상 강의 및 대화창구 개설 등을 위하여 홈페이지 관리인력을 양성하고 IT투자 확대
-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계리사회 내에 전화회의(conference call) 시설 등을 갖추

□ 상품계리 관련 정보를 축적하여 자료서비스 개선

- 상품, 계리, 리스크와 관련된 감독당국의 시달공문, 전문서적 등 자료 확보
 - 각사에서 축적하고 있는 자료를 성격별로 분류하여 축적하고, 홈페이지 자료실 코너를 활용하여 열람서비스 제공
- 상품, 계리 등과 관련된 제도변화 과거기록(history) 정리 제공
 - 각사에서 축적하고 있는 자료가 있는지 조사 후 진행방안 강구

□ 계리사회 장기 발전 계획 마련

- 계리사회 지속적인 발전을 체계적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3~5개년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(필요시 수정 및 보완)
 - 장기계획 수립 TF를 구성하여 계리사회 장기발전계획 수립
 - 장기계획을 만들기 위하여 업계 리더나 계리사들의 면담 필요

□ 특별활동에 대한 재원마련

- 조사연구 업무 등 필요시 용도별 기부금을 모금하여 해당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역량 확대
- 계리S/W에 대한 인증 등을 통하여 재원 확충방안 모색

6. 회원간 교류 활성화

① 목표

- 회원 간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유대관계 강화 및 상호발전 도모

② 현황 및 문제점

- 퇴임한 선배 계리사의 경험을 후배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의 장 마련 필요
- 과거 협정요율 체계에는 업계회의, 작업반 활동으로 공동작업, 정보 교환의 기회가 많았으나, 공정위의 견제, 요율자유화 등으로 현재에는 이런 기회가 부족한 실정

③ 대안 또는 개선 방안

□ 시니어계리사의 모임 활동 촉진

- 시니어계리사가 워크샵 등을 통하여 계리사(회)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모색
 - 자원봉사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(선배와의 대화 워크샵 등을 개최하여 중요한 경험을 공유하고 뒤풀이 등 진행)
- 시니어계리사들의 취미 및 여가활동을 위한 동우회 구성 및 활동 지원

□ 관심분야별 네트워크 결성 및 활동 지원

- 동일한 관심분야를 가진 계리사들이 함께 참여하여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토론방 운영(웹케스트, 전화회의), 세미나 개최 및 활동 지원
 - 관심 주제를 선정하여 진행할 계리사를 섭외하고, 안내, 지원자 모집, 필요경비, 장소 등 진행을 위한 모든 사무를 계리사회에서 지원
- 계리사회 홈페이지에 회원 상호간 계리관련 질의응답/댓글이 가능한 “서로 물어보기”코너 신설
 -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각 분야의 관심사에 대하여 회원 간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자연스러운 네트워킹을 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

7. 국제협력의 내실화

① 목표

- 국제계리사회와 교류 및 협력 강화
- 국제계리사회 회원으로서 국가 위상에 알맞게 활동함으로써 국제적인 신인도 제고

② 현황 및 문제점

- 2013년 국제계리사회 회원 가입 이후로 5년차에 접어들고 있으나, 회의참석 이외에 committee, section활동 등 전문가로서의 활동이 미흡한 실정임
- 국제무대에서의 활동 저조로 존재감 미약

③ 대안 또는 개선 방안

□ 국제계리사회 회의 참가 확대

- IFRS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회의 참석 및 역할 확대
- 한국의 의견 제안 및 반영

□ 국제계리사회 위원회 활동 촉진

- 우선 국내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핵심 분야 3~4개와 활동할 계리사를 선정하여 활동경비를 지원하고, 활동하는 회원이 국제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권장
 - 활동하는 회원이 국제계리사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당 회사의 예산 책정 시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고, 위원회 활동비는 계리사회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
 - 이와 같이 일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계리사회 사업계획 시 참석 대상을 사전에 선정하고 해당 회사에 지원 협조 요청
- * 위원회 논의내용이나 국제회의 참가 아웃풋 공유 필요

□ 국제회의 참여 결과 공유

- 국제회의 참가 후 주요 주제에 대한 자료를 자세히 정리하여 공유하고, 발표할 수 있는 자리 마련
 - 계리사회에서 참가비의 일정 부분 지원하고, 회의자료 등에 대하여 정리 및 발표 기회 마련

8. 기타

① 목표

- 투명한 업무처리 지향
- 실질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추진사업의 효용성에 대하여 피드백을 통한 추진사업 평가체계 도입
- 계리사회 외연 확대

② 현황 및 문제점

- 계리사회와 진행하는 업무와 관련한 업무처리 절차를 안내하여 관련자 편의성 도모 필요
- 현상논문의 경우 참여 저조로 매년 마감시한을 연장하면서 모집하고 있는 실정
- 계리컨설팅사 등 계리지원 단체의 계리사회 활동 저조

③ 대안 또는 개선 방안

□ 업무프로세스의 투명화

- 모든 업무는 예측 가능하고 투명하게 진행
 - 계리사회와 관련한 업무를 추진할 경우 진행방법에 대한 업무프로세스를 만들어 계리사회 홈페이지에 게시
 - 추진한 프로젝트 또는 사안별 보고서 등 업무 추진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
 - 기부금과 같은 특정 용도의 재원에 대한 상세한 사용내역 공개

□ 계리사회 추진업무에 대한 평가 후 환류 일상화

- 모든 업무 및 프로젝트를 평가하고, 지속적인 업무일 경우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진행
 - 작업 경위, 업무진행 과거기록(history)와 업무담당자를 사안별 보고서에 명기하여 기여도가 부각되게 함
 - 평가방법은 가급적 간단하고 객관적인 방법 사용(예 : 유용성에 대한 점수를 인터넷으로 평가)
 - 연간 단위로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
- 연례적인 행사 형태의 현상논문 모집은 폐지하고, 계리사회 활동(위원회 보고서, TF보고서 등) 중에서 우수한 활동을 대상으로 시상

□ 계리컨설팅사 등 보험사 외 계리지원 단체의 계리사회 활동 촉진

- 계리사회 외연확대를 위하여 계리컨설팅사, 계리법인 등이 계리사회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환경 조성 및 참여 권고
 - 계리컨설팅사, 계리법인과 협의하여 계리사회를 통한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지 모색(예: 새로운 계리모형 등 계리사회를 활용한 컨설팅사의 교육 진행, 간접적인 홍보 효과)

□ 계리법인의 서비스역량 강화 지원

- 계리법인의 수익성 개선을 위한 지원 검토(예 : 계리서비스수수료 지급기준 마련 등)
- 계리법인의 우수인력 채용 및 양성 지원 검토

□ 계리사회 활동 참여 활성화

- 회원 스스로 계리사회 활동에 소요된 시간을 기록하도록 하고 피드백과 함께 우수 활동 계리사에 대한 시상 등 혜택 부여 방안 강구
- 보험회사 경영진이 계리사회 활동에 대한 회사업무 기여도를 인정하고 권유하도록 하는 분위기 조성